

번호: PO-EP-068				
제 목	1999-2001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쯤쯤가무시병의 역학적 특성 A Study on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Scrub Typhus in Gyeongsangbuk-do, 1999-2001			
저 자 및 소 속	민영선1), 임현술1), 이 관1), 정 철2), 정해관3)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포항성모병원 산업의학과, 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Young-Sun Min1), Hyun-Sul Lim1), Kwan Lee1), Cheoll Jung2), Hae-Kwan Cheong3)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2)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Pohang St. Mary's Hospital, 3)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분 야	역 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쯤쯤가무시병 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p> <p>경상북도에서 조사기간 중 쯤쯤가무시병 환자는 1999년에 54명, 2000년에 104명, 2001년에 218명 등 총 376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및 지역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376명의 발생자 중 역학조사표가 있었던 344명(91.5%)에 대하여 조사표상의 인적 사항, 질병 발생 관련 요인 및 증상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하였다. 조사항목에는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의 기본 인적 사항, 질병 발생 관련 요인, 질병 관련 증상 등을 포함하였다.</p> <p>발생률은 전체 인구 10만 명당 1999년에 1.9명, 2000년에 3.8명, 2001년에 7.8명으로 연도별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든 연도에서 군지역의 발생률이 시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ath>p &lt; 0.01</math>). 3년간 역학조사표가 있었던 환자 344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 131명(38.0%), 여자 213명(62.0%)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농업이 231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16명(4.7%), 사무원 12명(3.5%) 등의 순이었다. 발병 전 야외활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298명(86.9%)이었고, 46명(13.4%)은 경험이 없었다. 야외활동 장소는 밭(64.8%), 논(51.7%), 야산(12.8%), 풀밭(9.7%), 축사(2.7%), 성묘(3.7%) 등의 순이었다. 발생월별 분포는 1월부터 6월까지 한 건도 없었고, 10월에 199명(59.8%), 11월에 134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증상 양성률은 발열 321명(93.3%), 두통 288명(83.7%), 오한 239명(69.5%), 발진 187명(54.4%), 전신근육통 97명(28.2%), 기침 54명(15.7%) 등의 순이었다.</p> <p>연도별로 환자가 증가한 원인은 기후의 변화, 신고율의 향상 및 외부 활동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쯤쯤가무시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